東大新聞
發行人 金東都 編輯人 宋南幹 主幹 蔡氷碧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㉓3130~9 本社直通 ㉓8498
每週月曜日發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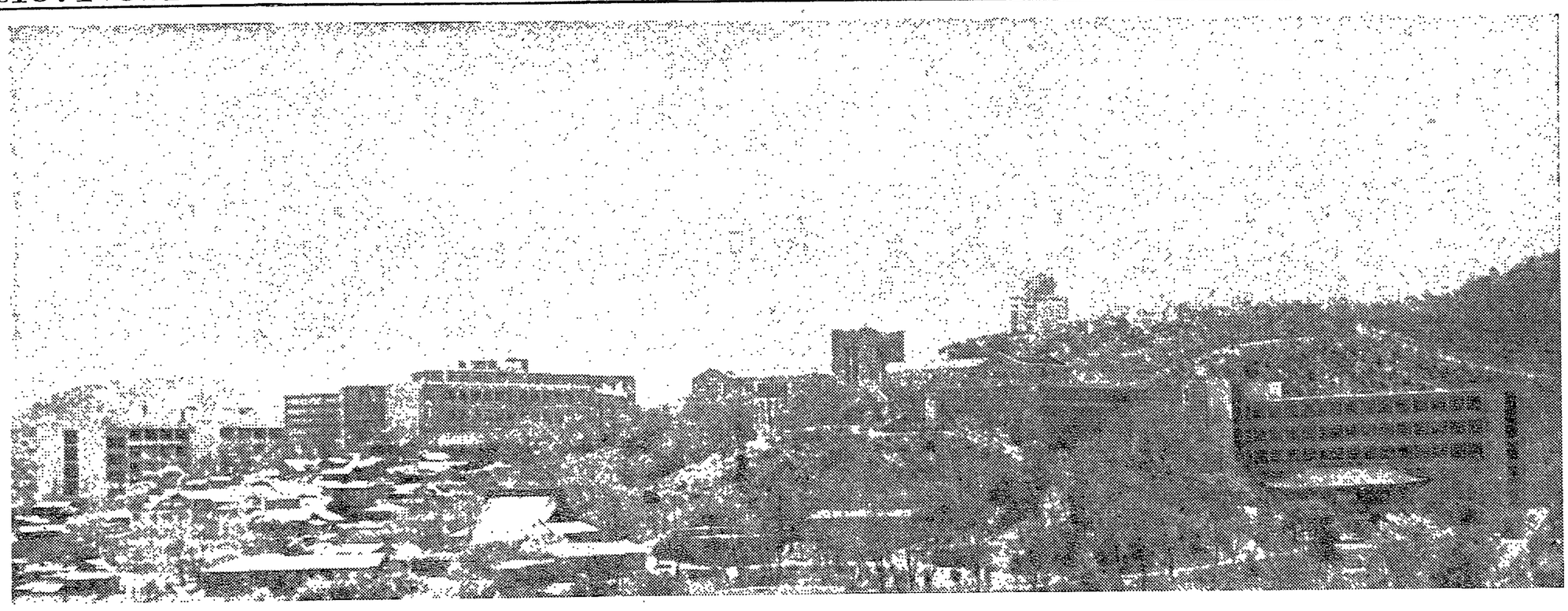
今週一言

智慧는 육체의 생명을 잘 파악한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얻는다。

<法句經>

祝

부처님 오신날 2593주년
東國大學校 開校 65주년
東大新聞 社員 一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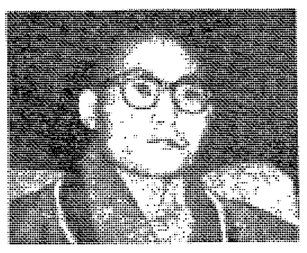


來日의 役軍이 사는 東國

〈사진·李春滿 기자〉

줄기찬 前進의 歷史…開校 65주년

理事長·蔡碧岩



親愛하는 東國人 여러분! 오늘 開校 六十五周年紀念日을 맞이하여 全東國人이 一堂에 모여 榮光과 苦難에 어린 大學史를 회고하고, 새로운 來日의 비약을 다짐하게 된 것을 衷心으로 기뻐하는 바입니다。

우리 東國大學校는 1906년 5월8일 부처님의 慈悲와 智慧의 빛을 받들어 元興寺에서 明進學校로 개교한 이래 민족의 역군을 육성하기에 최선을 다하여 왔읍니다。 三寶의 淨財로 창설된 본교는 근代的인 대학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전에, 亡國의 치욕과 함께 民族的인 受難을 克服해야 했읍니다。 日帝治下에서 民族敎育의 말살정책으로 인하여 수차의 강제 폐쇄를 당해온 본교는 그때마다 七顚八起하여 中央學林, 中央佛專, 惠化專門學校로 校名을 바꾸어 再起하여 왔던 것입니다。 오늘 돗자리를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갖은 고난과 弾壓속에서도 東國을 지켜오신 佛敎宗團과 역대 學總學長님 그리고 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려야 하겠읍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본교는 정부나 외국재단의 원조로 設立된 大學이 아니며 더구나 特定재단이 세운 大學도 아닙니다。 본교는 오로지 우리 민족을 先導해온 韓國佛敎의 순수한 힘으로 세워져, 의미한바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東大의 발전적 방향은 첫째로 建學理念의 具現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건학이념은 대학의 본질적 이념위에, 인간의 至上目標인 自利利他思想을 강조하는 불교정신입니다。 개교이래 校歌로 삼아 온 攝心과 信實은 自利行이며 慈愛는 利他行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행은 자기자신만을 이익되게 할 때, 그것은 小乘이요, 利己主義的 경향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 이 세상의 온갖 중생을 同質的 同時的으로 사랑하고 지혜롭게 할때는 大我요 大乘이요 참된 自利 利他行이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以來 近世敎育上에서 내세운 全人的인 교육의 이념도 바로 이러한 불교정신에 포괄되는 것입니다。 오늘 개교기념을 맞아 우리는 모두 인간완성의 저언덕을 향하여 精進하는 東國人임을 다짐해야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는 동대의 발전은 대학의 구성원들이 각기자기 책임을 다하는 곳에 있음을 강조해야 하겠읍니다。

연구하는 교수, 공부하는 학생이야 말로 대학발전의 원동력이며 추진력 입니다。 반면에 연구하지 않는 교수, 공부하지 않는학생은 모든 발전을 阻害 하는 反大學人이라고 確信합니다。

오늘날 학문의 세계는 나날이 새로워 지고있읍니다。 새 時代, 새 社會를 여는 지식과 지혜, 연구와 정진없이는 대학은 그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되며 沈滯를 폈할 길이 없읍니다。 교수는 학문연구의 열정을 더욱 증대시키고 아울러 교수내상과 방법을 不斷히 刷新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은 학구에 더욱 정진하는 것만이 대학인의 본분임을 다짐합시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대학건설을 기약하면서 화합과 단결로 대학사회의 새 風振作에 一路邁進합시다。

끝으로 대학발전에 盡力하시는 金東益 총장님을 위시한 學處長님의 노고를 致謝하면서 오늘 表彰을 받으신 敎직원과, 전통국인에게 항시 부처님의 加護가 있기를 빕니다。

總長·金東益

오늘 우리 東國大學校 開校 65周年 紀念式에 즈음하여 이자리를 빛내주신 內外貴賓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表彰을 받으신 勳綬敎授 職員여러분의 榮誼을 높이致賀하는 바입니다。

本校는 韓國近代敎育의 發祥地로서 1906年 5月 8日 佛敎宗國에서 세운 學問의 殿堂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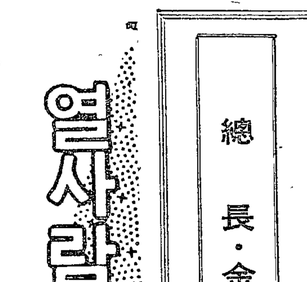
부처님의 慧命이 이 땅에 轉承된지 一、六〇〇餘年! 그간 韓國佛敎는 三國時代以來 민족과 국가의 先導的인 役割을 하여 韓國的인 固有文化와 精神形成의 主體가 되어 왔읍니다。 慕華末, 이민족이 混亂과 悲運에 처해 있을때 본교는 설립되어 敎育救國의 使命을 다하여 왔읍니다。

오늘 우리는 대학의 先驅者的인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제 65周年이라는 紀念日을 맞이하여 우리는 대학에 부과된 법국가적인 사명을 되새기며, 建學理念인 慈悲와 智慧를 오늘과 내일의 불로, 더욱 빛나게 해야 할 역사적인 相續者임을 이자리에서 다짐해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物量化하는 社會의 反人間的, 反道德的 폐풍은 韓國的인 것을 소외시키고 既存의 미풍을 짓밟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우리는 직시해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가장 韓國的인 文化遺産을 계승, 發展시킬 때, 그속에서 世界性을 발견할 수 있다는 點을 자각해야 할때가 온 것입니다。 올바른 主體性의 확립없이는 外來文物의 植民地로 전락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大學의 智慧와 역량을 總集結하여 민족을 主導하는 大學建設에 이바지해야 하겠읍니다。

民族的 矜持속에 大學建設

全人的 인격형성에 注力해야



開校紀念辭

새時代 여는 智慧·연구 긴요

和合과 團結로 새기풍 진작을

日就月將해 온 大學임을 자부합니다。

따라서 總國佛敎界의 中興은 바로 東大의 발전과 직결되며, 東大의 발전은 佛敎宗團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東大의 발전적 방향은 첫째로 建學理念의 具現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건학이념은 대학의 본질적 이념위에, 인간의 至上目標인 自利利他思想을 강조하는 불교정신입니다。 개교이래 校歌로 삼아 온 攝心과 信實은 自利行이며 慈愛는 利他行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행은 자기자신만을 이익되게 할 때, 그것은 小乘이요, 利己主義的 경향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 이 세상의 온갖 중생을 同質的 同時的으로 사랑하고 지혜롭게 할때는 大我요 大乘이요 참된 自利 利他行이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以來 近世敎育上에서 내세운 全人的인 교육의 이념도 바로 이러한 불교정신에 포괄되는 것입니다。 오늘 개교기념을 맞아 우리는 모두 인간완성의 저언덕을 향하여 精進하는 東國人임을 다짐해야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는 동대의 발전은 대학의 구성원들이 각기자기 책임을 다하는 곳에 있음을 강조해야 하겠읍니다。

연구하는 교수, 공부하는 학생이야 말로 대학발전의 원동력이며 추진력 입니다。 반면에 연구하지 않는학생은 모든 발전을 阻害 하는 反大學人이라고 確信합니다。

오늘날 학문의 세계는 나날이 새로워 지고있읍니다。 새 時代, 새 社會를 여는 지식과 지혜, 연구와 정진없이는 대학은 그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되며 沈滯를 폈할 길이 없읍니다。 교수는 학문연구의 열정을 더욱 증대시키고 아울러 교수내상과 방법을 不斷히 刷新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은 학구에 더욱 정진하는 것만이 대학인의 본분임을 다짐합시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대학건설을 기약하면서 화합과 단결로 대학사회의 새 風振作에 一路邁進합시다。

끝으로 대학발전에 盡力하시는 金東益 총장님을 위시한 學處長님의 노고를 致謝하면서 오늘 表彰을 받으신 敎직원과, 전통국인에게 항시 부처님의 加護가 있기를 빕니다。

열사람의 눈의 出港

宋油夏 〈佛敎學科·詩人〉

校庭에서 豫備하는 열사람의
눈의 出港
열 사람의 눈의 智慧
언제나 한 발자욱씩 앞서서 다가오는 바다。
열 사람의 꿈의 探索 앞에서
사랑의 꽃이 피어 나부끼더라도
아침에,
누가 그 꽃의 內海를 펼쳐낼 수 있으랴。

그 무렵,
忍苦의 깊은 바다에서
돋아나는 우리들의 꿈의 世紀는
順風 위에 떠있고
꿈많은 꿈의 밝은 하늘을 풀어
돛폭을 펼쳐올릴 때
가슴 앓는 攝心과 信實 속에서
純粹는,지금 發花。
校庭에서 圖書館에서 복도에서 만나는
열 사람의 探索의 눈빛
航行의 춤에 취할 때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이 바다의 喜悅을
누가 통촉하랴。
빨랫줄에 걸린 內衣처럼
純粹에 손금을 펴는 校庭에서
우리들의 出港은
苦海 속으로 뛰어들었네。

그대 가까이 내가 앉아야겠네。
그대 가까이 내가 일해야겠네。,
出港의 벅찬 勞動을 위해
바다에 서면
다만 하나의 꽃송이를 만날 수 있으리。」
뚝딱거리며 帆船을 짓는
희망의 눈 속에 피어오르는 흰 구름
天上의 풍금소리에 맞춰
춤추는
숲을 볼 수 있으리。

늠름하구나。航行의 먼 바다에서
길을 틔워나가는 船長은 늠름하구나。」
校庭에서 만나는 열 사람의 눈의出港,
몇 개의 寶石이 빛나는 나의 腦室은
마을의 平和를 이끌 수 있으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校庭에서 豫備하는 出航。
열 사람의 눈의 智慧
實로 慈愛의 비가 내리는 校庭에서
꽃은
햇빛을 삼키고 있네。불타고 있네。」
몇 개의 뜨거운 눈。
뜨거운 사랑의 言語들이
校庭에서 만나고 있네。」

祝

개교 65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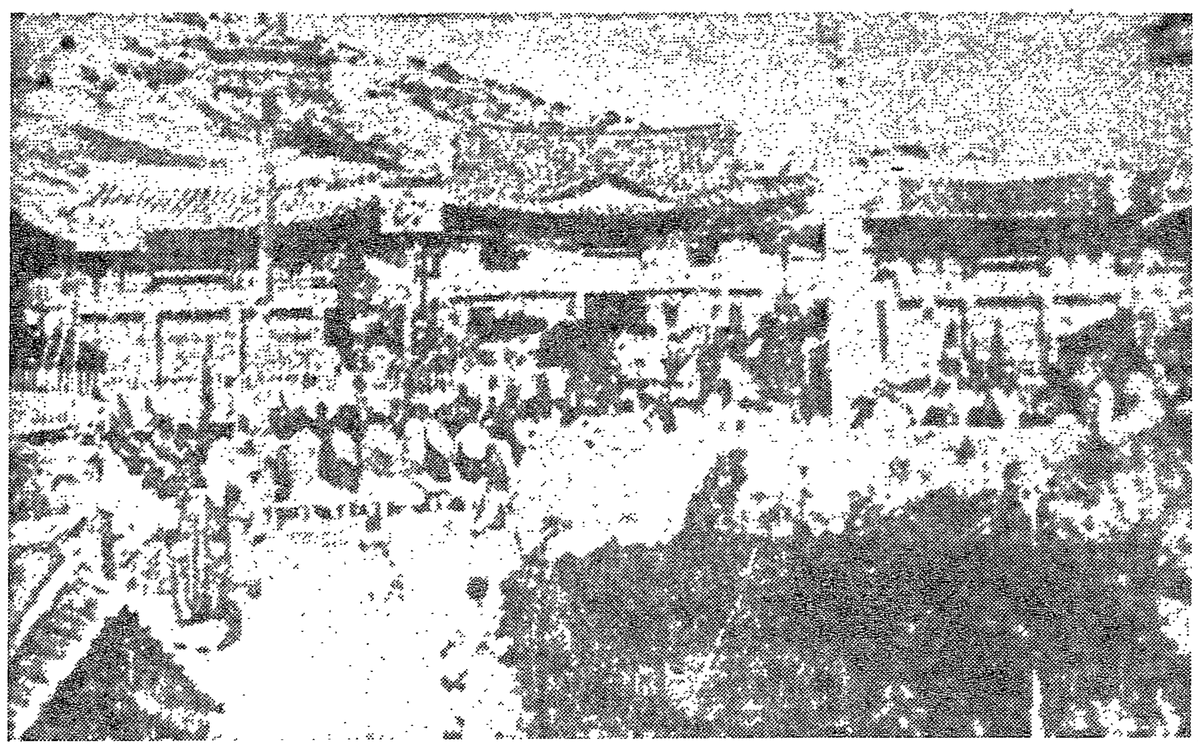
동대교직원및 재학생에게는
특별 할인봉사
1급 기능사 직접재단
최소가격 최대의 서비스

대표 백 광 일

골 덴 양 복 점

을지로 3가 로타리
TEL (26) 4938·5708

東大史의 故鄕—최초의 교사인 元興寺 〈現昌信國民학교자리〉



여기 돌에 새겨진 東大의 발자취

東大65年史

큰 智慧 큰 힘이 모두 우리 = = =

開校65주년記念式성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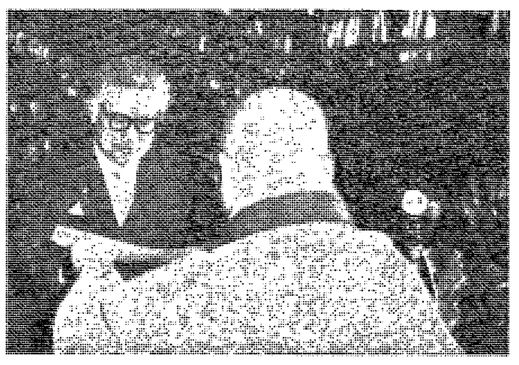
勤續敎·職員 14명表彰

지난 8일은 개교65주년 기념일. 불교정신을 創學이념으로하여 明進하교로 개교한 본교는 中央佛敎專門、慈化專門학교를 거치는동안 민족의 수난을 이겨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왔다. 이날 개교기념식은 8일 오전 10시 중강당에서 金東益총장、金榮華 대한원장을 비롯한 학처장및 총무원원장 李青潭스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다수와 2천여학생이 참석한가운데 勤續교수 직원 14명을 표창하는등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은 羅彦均학생과장의 사회로 경성여고 동계송과 대학의 만중한 사명을 다해 충기찬 전진의 협정단의 삼귀의、국민교육헌장낭독、학교연혁보고와 金東益총장의 기념사、蔡碧岩이사장의 고사、李青潭총무원장의 치사순서로 진행되었다.

金총장은 기념사에서 『全동국인은 불교정신에 입각한 創學정신을 되새겨 전통과 대학의 만중한 사명을 다해 충기찬 전진의 협정단의 삼귀의、국민교육헌장낭독、학교연혁보고와 金東益총장의 기념사、蔡碧岩이사장의 고사、李青潭총무원장의 치사순서로 진행되었다.

金총장은 기념사에서 『全동국인은 불교정신을 創學이념으로하여 明進하교로 개교한 本佛敎專門、慈化專門학교를 거치는동안 민족의 수난을 이겨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왔다. 이날 개교기념식은 8일 오전 10시 중강당에서 金東益총장、金榮華 대한원장을 비롯한 학처장및 총무원원장 李青潭스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다수와 2천여학생이 참석한가운데 勤續교수 직원 14명을 표창하는등 성대히 거행되었다.



◇근속 표창장을 수령하는 교수들.

이라고 말하고 『화합과 단결로 東國발전에 새롭게 임하자』고 강조했다.

李青潭총무원장도 치사를 통해 『살아있는 마음은 곧 人間의 재산』이라고 전제、『살아 있는 마음으로 도약하는 대학을 건설합시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본교 발전을 위해 10년이상 長期근속한 吳德永교수외 13명의 교수·직원에게 표창장과 메달을 수여 노고를 위로했다. 이날 기념식은 교가가 삼보의 연역에 울려퍼지는 가운데 끝났는데 곧이어 교수실에서는 간단한 개교기념파티를 가졌다. 다음은 長期근속표창자 명단.

▲吳德永(경상대·20년) ▲李鎭鎔(법정대·10년) ▲尹明老(불교대·10년) ▲元世鎬(농림대·10년) ▲趙演鉉(문리대·10년) ▲權允赫(법정대·10년) ▲金起東(교양학부장·10년) ▲閔完植(교양학부·10년) ▲李海浪(문리대·10년) ▲孔泰徽(농림대·10년) ▲洪庭植(불교대·10년) ▲李根鎬(주사·10년) ▲朴貞淑(주사·10년 이상 14명)

參禪大法會

法師에 徐박사

오는 23일 오전 11시 大學院에서는 「부처님 오신날」 2천5백93주년을 기념하는 「參禪大法會」를 갖는다.

「일요선우회」가 주최하는 이날법회는 徐京保불교대학장 (大學院長 겸임)을 法師로 모시는데 학생은 물론 일반시민의 많은 참석도 바라고 있다.

金知見助敎授 학술연구발표회

日本동경 大學院에서 연구중인 佛敎大 金知見조교수가 자료조사차 귀국、지난7일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護持大師의 華嚴學이 日本佛敎에 끼친 영향」을 주제로 학술연구발표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金교수는 『義湘대사의 화엄학論은 현재日本의 불교학계에서도 귀중한 문헌으로 괄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즐더 충실한 연구가 있어야 겠다』고주장하는 한편 화엄학의 진수를 날날이 피력했다.

金교수는 작년 7월 日本 佛敎大學 교수로 취임、현재 同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다.

佛敎學간담회

田村박사초빙코

佛敎文化연구소는 10일오후3시 同연구실(C건물4층)에서 일본九州大學교수 田村圓澄박사를 모시고 불교에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자리에는 大學院연구생과 학생들이 참석하여 일본불교계의 동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토론했다. 田村박사는 일본佛敎史를 전공하고있으며 이와 깊은 관계를 갖고있는 한국불교계의 자료를 수집키 위해 내한했었다.

行政大특강

7日、金敬洙씨

행정대학원에서는 지난 7일(金) 오후8시 「A세미나실」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金敬洙사무총장을 초빙、「유네스코의 현황과 활동」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열었다.

火曜음악회

유네스코학생회

본교「유네스코」학생회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후5시부터 7시까지 2시간동안 교내 도서관 2층 휴게실에서 정기음악회를 갖는다.

회장에 法眼스님

한국 宗敎학회 총회서

한국宗敎학회 총회가 지난 30일 오후 3시부터 본교 행정대학원 「A세미나실」에서 열려、「종교학연구 방법론」에 관한 세미나를 갖고 同학회장에는 본교 吳法眼상무이사를 추대하는등 임원개선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선 본교 종교학과 교수가 「불교문헌」발간을 위해 연구기금 확보에 나서 작년 11월부터지금까지 총40여만의 기금은 마련했다.

이 기금은 주로 농림대학 재학생들의 모금으로 충당되었는데 동문들의 찬조금도 있다.

연구기금 찬조자 (가나다순 금액)

◇농림대학교수·연구원 ▲李昇雨(1만원) ▲金熙坤(〃) ▲元世鎬(〃) ▲金熙培(〃) ▲權寧澤(〃) ▲鄭鎭九(〃) ▲金昌浩(〃) ▲權寧大(〃) ▲李相祖(〃) ▲孔泰徽(〃) ▲元炳微(〃) ▲金鍾熙(〃) ▲李海濤(〃) ▲蔡丙錫(〃) ▲朱宗祖(〃) ▲李秉東(〃) ▲安思明(〃) ▲趙炳鐵(〃) 이상 19만원〉

◇농림대학 재학생 (71년 卒業者포함)

▲농학과 (8만1천원) ▲임학과 (4만원) ▲농경과 (4만1천원) ▲농생과 (2만6천원) 〈이상 18만8천원〉

◇농림대학 졸업생 ▲李天九 (5천원) 〈이상1만원〉

【총계 38만8천원정】

敎授動靜

▲徐京保박사 (불대학장) ‖박사의 著書인 「불교성전」(축역대장경)을 불교문화사에서 3천부나 再版하여 지난 2일 부처님오신날에 각신도들에게 선물했다.

▲金泰玉박사 (사대학장) ‖지난7일 광주 朝鮮大學에서 열린 전국師範대학장회의에 참석하고 부사히돌아왔다.

蹴球後援會창립

基金 千萬원 年中催保

會長에 文泰植동문추대

本교 蹴球의 中興을 위하여 그간 추진해오던 東大蹴球後援會가 지난3일오후 外交구락부에서 同門 有志 33명의 발기로 창립、會長에 文泰植동문、副會長에 金聖涉·金準鎬·金鎭福동문、常任理事에 閔容植동문등 22명을 추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今年度 후원회 기본목표를 千萬원確保에 두고 그對策은 常任理事會로 넘겼는데 그전망은 대단히 樂觀的이다.

金鎭福동문의 발기인 代表인사와 閔完植(體育지도위원長)교수의 體育部現況、李丙疇(축구부지도교수)박사의 축구부現況、南部泳學生處長의 학교당국 支援態勢등이 있었다.

이건물내에는 40여개의 연구실·회의실·각종오락실이 마련되며 옥상에는 서울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있는 20여평의 스카이라운지도 만들기로했다.

건물이 완성되면 지하층(85평)에는 전기실과 기관실、1층에 대식당、2층에 학생처(학생과·학생지도위원회)3층에는 여학생회관과 7개 단과대학 학생연구실、5층엔 방송실과 각써클회의실、그리고 6층에는 전망대가 들어선다.

한편 8일 개교기념일에 제막키로 했던 코끼리像은 工程이 늦어져 오는 18일 제막된다.

基金 4百萬원喜捨

東大蹴球後援會 會長團과 閔同門

「東大蹴球후원회」제1차常任理事會가 지난 6일 정오 乙支路3가 「해천」에서 열려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基金모금운동은 친소관계와 同期別로 나누어 전개하되 오는 6월말까지 금년도 목표인 千萬원을 확보하기로 결의했다. 이날회의에는 회장단을 비롯하여 12명의 상임이사가 참석했었다.

1백여명의 회원을 가진 同클럽은 매주 수요일마다 정상과 동우탑등에 교내청소를 실시하고 있어 건실한 클럽으로 알려졌는데、이번에 또 회원들이 자진 納二百萬원을 내기로 결의、그 납부하는 방법은 5월의 상그룹 체육대회때 본대회는 대회장인 金東益총장을 비롯한 전동문인 5천여명이 「스탠드」를 메우게 되는데 오전 9시 축하식과 비둘기가 날부하는 가운데 입장식과 개회식이 거행된다.

5월의 상그룹 행사속에 펼쳐질 본대회는 대회장인 金東益총장을 비롯한 전동문인 5천여명이 「스탠드」를 메우게 되는데 오전 9시 축하식과 비둘기가 날부하는 가운데 입장식과 개회식이 거행된다.

대회종목에는 이들 빛내기위한 체육과1·2학년생의집단체조인 「검부림」、「농어촌연구부의 盛衰」、明星女高의 「무용」、인석국민학교생 9백명의 「태극놀이」가 각각 수놓아 전부 도합 열세 종목은 육상에서 100·200·400·800m계주가 각단대별 대동상고對부속고교 (총장기 쟁탈)대항경기로 진행되는데 아울러 졸업생의 리기도 있다.

競技 경기에서는 축구·배구·농구의 결승전이 임시 마련된 각경기장에서 계속 되며 부수경기로써 직원의 축구시합、내빈 동창의 「떡비」공굴리기 자모들의 공운반 시합이 진행된다.

또한 각단대별 「씨름」대회가 임시 「링」에서 각축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들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는 체육지도위원회에서는 이와같은 각종행사를 앞두고 지정된 차를 밤도록 농구 축구등 구기종목의 예선전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갖는다.

東國祝典은 18日부터 4日間 開幕

총학생회 주최로

신년 2천5백93주년을 기념하는 제12회 「東國祝典」이 총학생회 주최로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교내 각처에서 화려하게 베풀어진다.

5월의 「캠퍼스」에 지성과 낭만을 꽃피울 이번축전에는 5천여 全동국인은 물론 중립학원산하 각급학생및 동문들도 참여、단결을 과시하게된다.

이번 축전은 첫날인 18일오전10시 南基一총학생회장의 축전선언식으로 시작하여 중강당을 비롯한 각 부서별 시행장소에서 계획된 행사들이 진행된다.

축전기간에 베풀어질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각종 학술「심포지움」을 비롯 동악경연대회、전국남녀문학「콩쿨」대회、교내종합체육대회、전국남녀문학「콩쿨」대회 등 다방면에 걸쳐 다채롭게 펼쳐진다.

한편 역학생회에서는 이 기간중 「연꽃찻집」을 개설하며 바자회、서예전、꽃꽂이、동양자수전시회등을 갖는다.

축전을 통한 행사일정(괄호안은 시행장소)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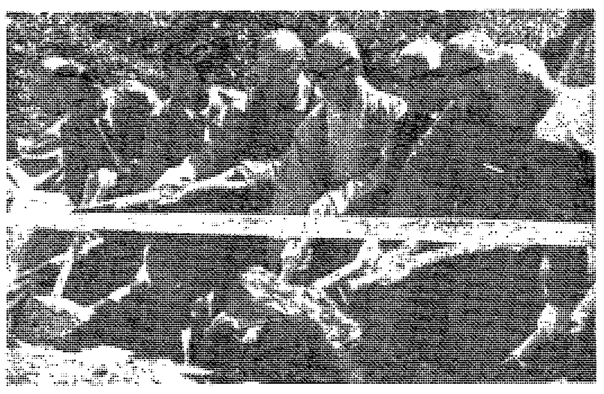
◇18일 ‖ ▲축전선언식 (중강당·10시) ▲전국대학농악경연대회 (시청각교육실·10시) ▲전국대학 농악경연대회 (대운동장·1시) ▲전국남녀대학생 영작문대회 (「캠퍼스」) ▲동양자수 (여학생회관) ▲동양자수 (여학생회관·10시부터) ▲박물관 소장품 공개 (박물관) ▲미술전 (화랑) ▲연극공연 (소극장 박진작 「영자전」) ▲시화전 (사색의길) ▲연극공연 (소극장 「아카데미」) ▲바자 (여학생회관·10시부터 17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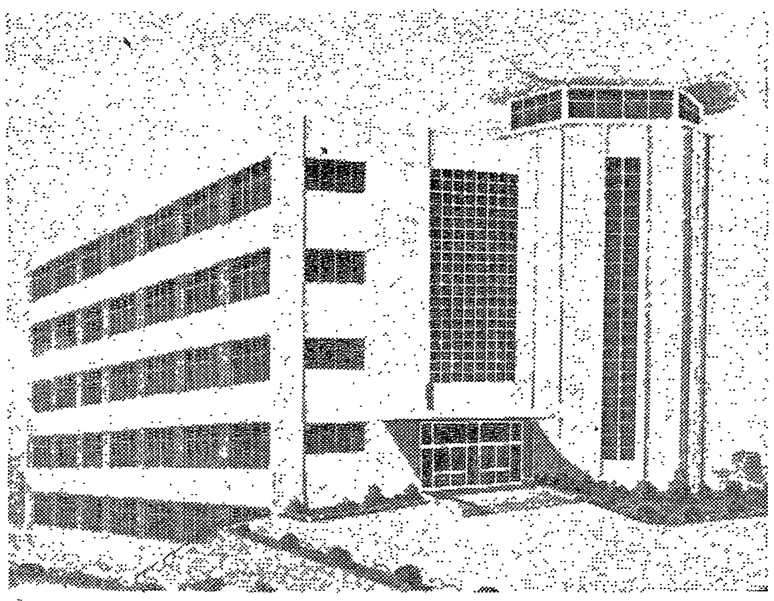
◇19일 ‖ ▲바자 (여학생회관) ▲서예전시회 (여학생회관) ▲꽃꽂이 (여학생회관) ▲동양자수 (여학생회관·10시부터) ▲박물관 소장품 공개 (박물관) ▲미술전 (화랑) ▲「스킷드루버」장비전시회 (육수연결탑) ▲「연꽃찻집」(여학생회관) ▲「콜」(제1체육관) ▲게임·콜」(제1체육관) ▲자선바자회 (제1체육관)

◇20일 ‖ ▲「아카데미」(시청각교육실·10시) ▲파라다이스 초청장 (중강당·10시) ▲30인의 휴게실 (중강당·10시) ▲30인의 휴게실 (중강당·3시) ▲동국인 올스타 BS농구대항전 (중강당·3시) ▲동국인 올스타 농구대회 (중강당·1시) ▲종교학과 (시청각교육실·3시) ▲법정인의 밤 (도서관 7시·카니발)

◇21일 ‖ ▲「아카데미」(시청각교육실·10시) ▲연극공연 (소극장 박진작 「영자전」) ▲시화전 (사색의길) ▲연극공연 (소극장 「아카데미」) ▲바자 (여학생회관·10시부터 17시까지)

◇22일 ‖ 제9회 전국남녀문학 「콩쿨」대회、전국교교육 「심포지움」(시청각교육실·3시) ▲한문학 「콩쿨」대회、전국교교육 「심포지움」(여학생회관) ▲꽃꽂이 (여학생회관) ▲동양자수 (여학생회관·10시부터) ▲박물관 소장품 공개 (박물관) ▲미술전 (화랑) ▲「스킷드루버」장비전시회 (육수연결탑) ▲「연꽃찻집」(여학생회관) ▲「콜」(제1체육관) ▲게임·콜」(제1체육관) ▲자선바자회 (제1체육관)





6層으로 11月落成

學生福祉施設 갖추어

학생들의 복지에 일익을 담당하게될 「래머드」학생회관이 지난 8일 확정문서 스넘을 비롯한 財團理事陣과 金東益총장을 비롯한 東華대학원장、학처장 학생처장 생산수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착공식에서 첫삽질을 함으로써 그 기공을 보았다.

이날 기공식은 개교기념 직후 李青潭 총장은 『학생들의 숙원이던 모의 건물과 완벽한 내부시설을 자랑하게 될 학생회관은 총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오는11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 학생회관은 황전문 옆의 공지에 건평1천2백평 6층건물로 세워져 그 위용을 자랑하게 된다.

▲학생회관 조감도 (上)와 기공식에서 첫 살을 하고 있다.

敎授동정

◇李昇雨(1만원) ▲金熙坤(〃) ▲元世鎬(〃) ▲金熙培(〃) ▲權寧澤(〃) ▲鄭鎭九(〃) ▲金昌浩(〃) ▲權寧大(〃) ▲李相祖(〃) ▲孔泰徽(〃) ▲元炳微(〃) ▲金鍾熙(〃) ▲李海濤(〃) ▲蔡丙錫(〃) ▲朱宗祖(〃) ▲李秉東(〃) ▲安思明(〃) ▲趙炳鐵(〃) 이상 19만원〉

◇농림대학 재학생 (71년 卒業者포함)

▲농학과 (8만1천원) ▲임학과 (4만원) ▲농경과 (4만1천원) ▲농생과 (2만6천원) 〈이상18만8천원〉

◇농림대학 졸업생 ▲李天九 (5천원) 〈이상1만원〉

【총계 38만8천원정】

農科硏 40여만원 확보

로 금기연구발간연「論文集」

농림과학연구소는 개교65주년기념사업으로 「논문집」발간을 위해 연구기금 확보에 나서 작년 11월부터지금까지 총40여만의기금은 마련했다. 이 기금은 주로 농림대학교수들의 협조와 재학생들의 모금으로 충당되었는데 동문들의 찬조금도 있다.

연구기금 찬조자 (가나다순 금액)

◇농림대학교수·연구원 ▲李昇雨(1만원) ▲金熙坤(〃) ▲元世鎬(〃) ▲金熙培(〃) ▲權寧澤(〃) ▲鄭鎭九(〃) ▲金昌浩(〃) ▲權寧大(〃) ▲李相祖(〃) ▲孔泰徽(〃) ▲元炳微(〃) ▲金鍾熙(〃) ▲李海濤(〃) ▲蔡丙錫(〃) ▲朱宗祖(〃) ▲李秉東(〃) ▲安思明(〃) ▲趙炳鐵(〃) 이상 19만원〉

◇농림대학 재학생 (71년 卒業者포함)

▲농학과 (8만1천원) ▲임학과 (4만원) ▲농경과 (4만1천원) ▲농생과 (2만6천원) 〈이상18만8천원〉

◇농림대학 졸업생 ▲李天九 (5천원) 〈이상1만원〉

【총계 38만8천원정】

學生 主體性 있는 價値觀을

내가 바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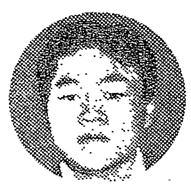
〈국문과〉 羅 玉 英

내가 몸을 담고 있는 동국대학에서 뜻있는 4년을 보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주위의 여건이 조금씩이라도 갖추어져야 했다.

먼저 나와 더불어 숨한 날들을 같이 살아갈 동국인에게 주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운 다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성히 살아가라고 말하고 싶다. 자기자신의 욕구불만으로 무조건 반발하는 자기상실적인 태도를 보면서 서글퍼진다. 모든것은 자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앞으로의 출세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현실의 모순을 직할없이 받아 들이느보다 자기 실력을 닦은 다음 대항할 者 나오너라 식의 떳떳한 태도는 보는 사람도 시원 할것이다. 한편 교수님들께는 임체적인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강의가 충요한 대학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할때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관계 참고 도서소개、자료、사진 기타의 살아 움직이는 강의내용이 공식적 교재위주의 강의보다 바람직하겠다. 학생들이 그 강의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삼화를 섞어서 흥미있고 진지한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도 학구적인 열의를 보일 것이다. 비단 생각하는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그런 예가 허다하다. 이에 자신있게 이런 말을 할수 있다. 그리고 동문들의 후배에 대한 사랑이 깃든 적려가 있다면 우리들은 신념을 가지고 자기 일에 열중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내에 있는 여학생회관을 이용한 선후배간의 모임이 구체적、정기적성격을 띄고 마련될 수있는 계기가 이루어 져야 하겠다.

여기에 당국은 학습 환경의 조성을 위해 바삐 눈을 돌려서 미비된 여러 시설을 확충시킨다면 우리 동국대학은 보다 알찬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회변천 따른 講義요망



〈법학과〉 裵 容 政

학교당국에 바라고 싶은 몇가지가 있다. 첫째로 강의실 정원제 실시를 엄수해 줬으면 한다. 학생과 수강생을 계산한 강의실 배치와 같은 셋째 교양학부 도서실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이런 문제는 학생처장 및 학교당국에 건의할 문제이지만 거친 나의 경험으로는 교양 학부 과정의 설정적인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리라 본다. 불연속적인 강의시간、결강등 남는 시간을 활용하기에 필요하다고 본다. 교수에게도 바라고싶다. 첫째 변화있는 강의를 해주었으면 하는거다. 급속도로 사회가 변천하듯 학문도 올바른 이치에서 터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박힌 강의를 지양、변화있는 강의를 받고싶다.

두번째로 대학은 개성교육이란 말이있다. 교수자신의 개성을 주입시키려 들지말고 학생자의 개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다음은 동문에 바라는 바、후배양성에 적극성을 띄어 있는 장학제도 결성에 보다 깊고 넓게 동문의 사회각층에 보다 국인이 전재할을 祉會一般에 인식시켜 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동국학우들에게 다짐해두고 싶은 것은 우리의 동국을 진정한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자는 것이다.

체육관 샤워장 있었으면

이 덕 성 <체교과>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고 또한 살아갈 것이다. 사람의 발전은 그 환경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체육교육과를 위시해서 여러 운동부가 활약하고 있는 우리학교의 체육시설을 돌려보자.

체육시설하면 첫째로 운동장과 체육관을 들지 않을 수 없을것 같다.

또한 우리 학교에는 체육관이 없다. 게다가 탈의실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하여 체육시간이면 운동장 아무곳에서나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할 형편이다. 우리는 구태여 많은 자금을 들여야 세울수 있는 체육관을 원하지는 않는다. 간이 체육관 이라도 있었으면 한다. 그의의 운동기구도 손을 봐야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우리는 없다고 불평만 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없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없는 것은 다른곳에 가서라도 배우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당국에서는 자주만 기일을 늦추고만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운동시설 중에서 샤워장을 빼놓을 수 없다. 먼지이는 운동장에서 한참 땀을 흘리고 날뛰면 우리에겐 피로가 몰려온다. 얼마전 타대학에 다니는 친구에게서 이런말을 들은 일이 있다. 『동대는 지금가 놀아서 그런지 몰이 귀하다.』 내겐 변명 할 말이 없었다. 샤워장은 그만두고라도 오천명이 활용할 수 있는 수도 시설이라도 있었으면 한다.

끝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학교의 기물을 바로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自己 반성하는 學生 돼야

김 만 석 <화학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치부를 들춰내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그들의 떳떳한 태도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한다. 자신의 치부를 들춰내는 것은 용기있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을 뜻하겠는가.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용기있는 행동이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하고있는가.

뿌리 깊은 나무의 밑줄과 같이 겨루고 있는 나라의 대학생으로서 생활하고 있는가.

東國人은 「나의 위치를 아는 자성 속에서 모든 행동이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여건을 단단히 다져주기 위해 학교당국의 모든 제반업무가 지원돼야겠다. 근래 外的으로 나타나는 시설확충은 좋은 현상이다. 이에 비례해서 東國의 구성원인 교수、학생、교직원 간의 대화있는 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학생에게 책임을、미루는 현상은 없어져야겠다. 문제는 대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만큼 실천돼야 된다는 것이다. 교수와 학생이 같이하는 교양강좌및 토론회 형식의 공동자리가 정기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언하고 싶다.

왜냐하면 사제간은 가르침과 스승 자신의 당면한 과제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의식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선배는 숨기지 말고 대학 4년의 생활 속에 살피고 느낀 생각과 의견을 후배들에게 솔직히 이야기해야한다. 자신의 치부를 들춰내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그들의 떳떳한 태도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한다. 미흡한 점、후회되는 모든 사항을 후배들은 겪지 않도록 조언해 줘야 할 것이다. 문제는 東國의 구성원들이 가꾸적인 의식과 애정을 갖도록 하는 모든 노력이 시도되어야겠다.

祝 開校65주년 이렇게 바라다

學生

(祝) 開校65주년

각종 체신업무

구내우체국

석조전 왼편

신흥인쇄공사 대표

고시학원 원장

천풍인쇄주식회사 상무이사

박충일

전화 ㉕ 2437 1976

지정 교복점

고급 신사복

한미라사

종로2가 (파고다공원정문옆)

TEL ㉔ 4846 8343

지정 교복점

부라더스양복점

풍전상가1층 라열164호

TEL ㉖ 6343 3171~9 구내 111

지정 교복점

창미라사

종로2가파고다아케이트105호 (허리우드극장입구)

전화 ㉔㉓ 6725 6030

지정 교복점

허리우드극장 2층

태인사

종로2가 낙원백화점내

전화 ㉓㉔ 7483 7151~5 구내 125

최신설비

실비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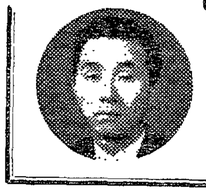
구내식당

본관아래층

전화 구내 338

대학생의 國家觀

◇ 年齡集團간의 갈등을 中心으로



李廷植 〈法政大政外科교수〉

(1)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後天的으로 국가를 얻은 年齡集團과 先天的으로 국가를 얻은 年齡集團이 공존하고 있다。후천적으로 국가를 얻은 집단의 國家觀을 경험적인 것이라고 말할수 있다면 선천적으로 국가를 얻은 집단의 국가관은 선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후천적으로 국가관이 退潮되어 가고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물론 국가관이 반드시 경험적이어야할 필요는 없다。그러나 선천적인 국가관이 그實在를 보장받기 위하여 역사적인 경험적 국가관은 필요하다。建國이후 25년이 지난 오늘날 선험적인 연령집단의 고정관념화된 국가관이 論議의 대상으로 提起되게 된것은 그러한 역사적인 경험적 국가관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認知되는데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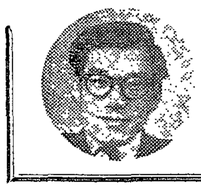
(II)

그러나 여기에서는 국가발전에 관한 국가의 연금할 역유가 없다。다만 국가의 實在, 그리고 되었던 國家觀念이 固定觀念化 되었던 국가관이 오늘날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특히 先驗的인 國家觀을 지니는 年齡集團은 국가의 운용은 물론 운해로운 국가기능을 認知할 수 있을만큼의 국가의 위기를 사회의식을 통하여 체험하지 못했다고 말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것이다。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국가의 존재와 기능에 대한 認知狀態가 고정관념화되어 國家現象은 국민생활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있는 국가구성의 인자로서 자기가 同類인 自己집단의 이익과 명령을 내리고 그것에 따라 增殖의 활동을 전개하므

萬海의 獨立運動

安啓賢 〈史學科 敎授〉



萬海 韓龍雲이 그 일생에 걸쳐 전개했었던 反日鬪爭 내지 민족독립운동은 1919年에 있은 3·1운동을 그 劇的인 정점으로하여 3時期로 묶어진다。東學혁명에의 참가와 臨濟宗 宗務院設立에있어서의 그 역할등은 1919年에 있은 3·1운동을 그 劇的인 정점으로하여 3時期로 묶어진다。東學혁명에의 참가와 臨濟宗 宗務院設立에있어서의 그 역할등은 바로 1910년 아른바 韓日合邦 당시에 이르기까지의 前期에 있어서 투드러지게 나타난 것이지만 그가 臨濟宗 宗務院설립에 있어서 비중이 큰 역할을 담당케된 데에는 우선 그가 다름 아닌 동학혁명실패후 근본적인 인생문제에 대한 탐구와 그 실천을 위해 佛門과 인연을 맺어온것에 기인하는 것이다。설악산 五歲庵에서의 수년간의 수도생활에이어 마침내 1905년 27세때 麟路 百潭寺에서 金還谷和尙에 의하여 得度한 일은 그후 평생 그의 반일투쟁 내지 민족독립운동으로 佛敎를 그 바탕으로하는 것으로 이글에 했다는데서 그의 일생에 있어 매우 획기적이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一、東學革命에의 참가

崔雄王辰으로 부터의 收斂과 의해지본주의의 침략에 의하여 一層의 고통을 받아온 농민들의 불평이 마침내 1894年 전라도 古阜郡守 趙秉甲의 收斂이 직접적인 도화선이되어 폭발된것이 근대화를 지향하려는 대규모의 동학혁명이었다。

이두련, 鄕里 忠淸도 沔城에서 書堂敎育을 받아오던 萬海는 1896年 18세의 몸으로 분연히 이 동학혁명에 참가했다。그의 先親 奉振과 더불어 完山에서 의병활동에 참가한일도 있었음은 적지않은 감화를 萬海에게 던져 왔었던것이다。

그가 동학혁명에 참가했던때는 이미 동학農民軍은 일본군의 섬멸작전에 의해 진압되어가고 있었다。마침내 그는 동학혁명의 대세도 거의 기울어지게되자 보다넓은 견문을 위해서 서울로 상경하는 도중 홀연히 발을 설악산으로 옮기는 것이다。

二、臨濟宗 宗務院설립 전국 寺刹대표 52人이참신한 新佛敎수립을 위해 圓宗宗務院을 세운것은 1908年의 일이었다。그러나 2년후인 1910년의 先親 奉振과 더불어 完山에서 의병활동에 참가한일도 있었음은 적지않은 감화를 萬海에게 던져 왔었던것이다。

그가 동학혁명에 참가했던때는 이미 동학農民軍은 일본군의 섬멸작전에 의해 진압되어가고 있었다。마침내 그는 동학혁명의 대세도 거의 기울어지게되자 보다넓은 견문을 위해서 서울로 상경하는 도중 홀연히 발을 설악산으로 옮기는 것이다。

二、臨濟宗 宗務院설립

參禪과 젊은 世代

禪은 思惟修라 한다。또는 위대한 정신과學이라고 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다。중국에서 발달한 禪學은 현대에 이르러 歐美세계에 까지 그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과연 禪이 현대생활에 주는 참신한 도움은 무엇일까? 오늘날 핍박한 정신생활을 이루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安定된 思惟를 할수 있을까? 지난 4월23일 大學禪院에서 교수와 학생간에 禪學좌담회가 열렸다。우리는 어떻게 禪을 이해하고 수행해야 할것인가。좌담회에서 나타난 의견을 정리하여 이와같은 禪의 生活化에 도움을 삼고자한다。<편집자>

大學禪院 주최 禪學 좌담회

참석자

□金東華 (大學院長·哲博)
□徐京保 (佛敎大學長·哲博)
□吳法眼 (曹溪宗 國際學院 常務理事)
□李喜益 (法施社 主幹)
□蔡洙榮 (佛敎·3)
□李甲憲 (哲行·3)
□韓호남 (曼生·3)
□康聖賢 (印哲·2)

△場所 : 大學禪院
△司會 : 宋 赫 (本社 主幹)
△記錄 : 金衛均 기자

▲禪學 좌담회

김동화 박사

서경보 박사

오법안 스님

이희익 주필

송혁 주간

禪은 自我의 본질體得에 막힌 現代思想은 禪으로 구제해야 마땅한 것인가

禪과 젊은 世代

精神世界 순화의 길

永生을 體驗하는 三昧境에

구체적 修行法 禪의 境地

禪·요가 雙修는 위해 智慧를 닦는것

참선—成佛의 해탈

요가—眞我獨尊 향한 신체조련

『요가』와 參禪

禪과 精神訓鍊

自己生活 충실히

禪의 生活化

요가는 全印度人의 生活指針

禪學 좌담회

禪과 젊은 世代

精神世界 순화의 길

永生을 體驗하는 三昧境에

구체적 修行法 禪의 境地

禪·요가 雙修는 위해 智慧를 닦는것

참선—成佛의 해탈

요가—眞我獨尊 향한 신체조련

『요가』와 參禪

禪과 精神訓鍊

自己生活 충실히

禪의 生活化

요가는 全印度人의 生活指針

官認 I. L. I 학원
外國語의 전당
◎美國人 영어會話 · 한인 영어會話
◎日本語 (文法 · 會話)
◎불어 · 獨語
◎서반아語 (文法 · 會話)
◎時事英語 (Time & Digest반)
◎海外여행 인터뷰반 ◎英作해석전문반
◎貿易士 시험준비반 (貿易英語·法規)
개강 5월 13일
종로2가네거리 인천행 삼화고속앞
자세한사항은 電話⑭1817로 문의하십시오

法雄臺 定總公告
□日時 1971年5月16日 오전 11時
□場所 본교 小劇場
※會費는 在學生 5백원, 卒業生 1천원
※졸업생은 당일 오전 10시30분까지 法雄臺 (석조관 5층)로 다녀가시기 바람
1971年5月9日
東國大學校 法雄臺 會長

팔송 명곡 민요 키타 반주법 1개월 완성
개강 5월13일
가장 쉽고 짧은 기간에 당신의 취미 관솔기타 반주법을 배우시지 않으시렵니까?
기초부터 흥미있고 빠른 지도방법으로 최신 팔송·명곡·민요 (노래부르며) 70여곡을 능숙하게 연주하도록 지도함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초보자 경험자 환영)
개인지도…피아노·크래식키타·째즈가요키타
관인 쟈니음악학원 ⑮9983
종로5가네거리 동대문쪽50m

□PA칼라綜合現像所
□고급 人像寫眞專門
東大지정 寫眞館 사진藝術苑
▲종로2가 인사동75
<파고다 아케이트앞> ㉜3018
▲東大本館2층寫眞室
代表 宋生南

米 각안과 처방조제
각종안경구비
⊙점평있는권유
⊙최고의 기술
⊙최저가격봉사
서독렌즈 전문판매점
안경의집 정화사
을지로입구(울지1가쪽) ㉜2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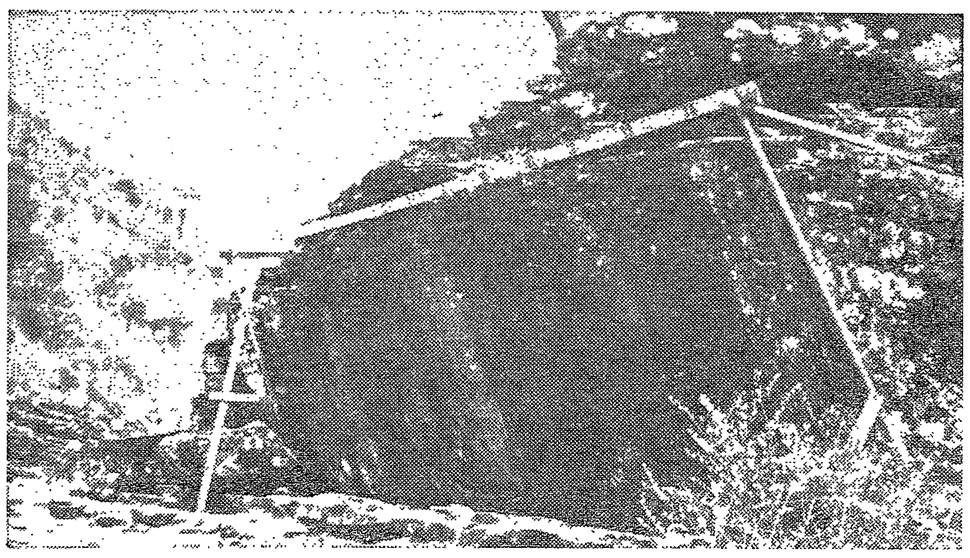
정형외과·미용외과
명도의원
院長 김현정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82-1
☎ ㉓ 6957·4338 (UNESCO회관옆)

禪思想의 集大成
一鵬法語集 (再版)
佛大學長 徐京保博士의 禪思想說教集!
徐博士가 十餘年間 西歐各國에서 禪哲學을 높히 宣揚하여 西歌社會에 一大扇風을 일으킨 一大法語 鵬法語集이 再版됐다
定價 800원
注文處 佛書普及社 서울鐘路區曹溪寺옆
(徐博士後援會 再版發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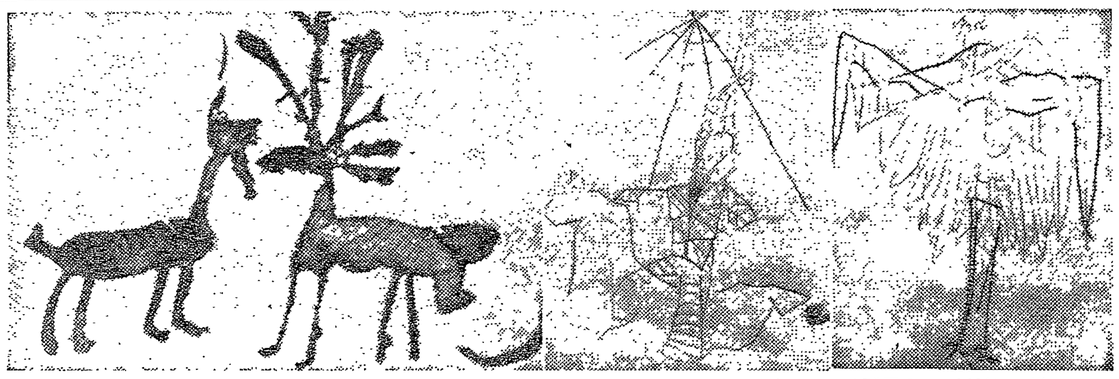
제3회
東女會정기총회
때 5월16일
곳 수원 팔달사
※오전 9시30분까지 황전문 앞에 집합 버스대절
東女會 부회장 鄭任順

原稿募集
본 학술연구회에서는 대학생들의 학구적인 태도에 박차를 가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령으로 학술논문을 모집하여 책자로 발간 배부코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玉稿를 기다립니다
다 음
1, 대 상 본교 재학생
2, 내 용 학술연구논문
3, 원고매수 200자 원고지 50매내외
4, 접수기간 1971년 6월20일—7월 5일까지
5, 접 수 처 학술연구회실 (B건물 1층 146호)
기타 자세한 것은 본연구실로 문의바람
1971년 5월10일
총학생회 학술연구회
회장 최성렬

東大博物館 調査報告記



□古新羅의 誓石全景=길이10m、높이3m의 巨岩에는 約3백字의 文字와 그림의 파노라마를 이루고있다。



▲사 슴 ▲당시 귀족이 말을타고 日傘을 받고있다。 ▲계통으로 보이는 새。

新羅의 誓書石

蔚州반계遺蹟의 調査成果

黃 壽 永
<本校 博物館長·佛教大교수>

(一)

이곳은 우리나라 南端에 가까운 慶南 蔚州郡 斗東面 川前里인데 신라 金庾信將軍의 修練場으로 전하는 咽(목) 瀑山에서 發源하여 東海에 이르는 大和江의 上流이기도 하다。九曲溪를 이루는 이 반계천은 이곳에 이르러 크게 완곡되어서 U자형을 이루었으며 水石은 한층 아름다워서 멀지 않은 下流에는 磐龍名勝이라 일컫는 盤龍臺의 絶景을 이루고 있다。이같은 天成의 조건은 일찌기 이곳이 신라 王都에 인접되고 있어서 內陸에서 海洋에 이르는 가장 重要한 交通路의 구실을 하였기에 마침내 이곳에서 自然과 歷史와 人物의 기묘한 契合을 얻기에 이르렀던 것이다。마침내 無名이던 이곳에서 그들의 표현대로 「善石」을 찾았으며 이 善石을 다듬어 혹은 文字를 새겼던 것이다。그리하여 古新羅에서 統一末期에 이르는 數百年 그들이 長敬하며 애써 찾던 곳이기도 하였다。

이른바 이 善石은 상기와 같이 U형을 이루는 溪流에 있어 急流는 상대편 암벽을 따라서 흐르고 있다。이것 또한 이 善石이 오늘에 보존되어 오는 한 원인이 되었다。이 善石은 동시에 그 벽면이 앞으로 傾斜되어 있어서 風化作用에서 어느정도 보호되어 왔을 것이다。

石面 그 자체는 人工에 의하여 다듬어지기는 하였으나 넓이 약 10m 높이 약 3m에 달하는 이 大石은 몇 곳에 剝落과 龜裂의 흔적을 보이기는 하나 오늘에 完存한 것은 또한 多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造形이후 아마도 新羅王國의 運命과 더불어 忘却되고 放棄되어서 그에 대한 記錄이나 口傳조차 없이 千年의 歲月이 흐르는 사이에 表面에는 두께운 苔가 모든 것을 감추어버렸던 것이다。昨年 12月 下旬에 박물관의 조季調査가 이 溪谷의 寺址를 더듬어 올라갔을 때 이곳 盤龜部落의 有力者인 崔老人의 敎示로서 처음으로 發見된 것이다。그 때 이 善石은 幸運은 아니었으나 이때의 發見은 1968년이래 現地踏査였다。

이 善石은 矩形을 이루고 東南을 向하여 南北으로 길게 자리잡고 있다。먼저 이곳에서 주목된 내용은 磐龜의 絶緣은 좋은 詩歌 또는 聚朴한 古代人의 題名을 뿐 아니라 또한 寫實畵를 調査하는 것이 우리 一行이 하여야할 일이었다。

(二)

조사에 앞서 우리는 이 부근의 地形을 대체로 살펴 보았다。文字와 그림 등이 가득 새겨져 있는 巨岩에서 U字形으로 구부러진 냇가를 사이에 두고 이 냇가 바로 뒤에는 個峙急한 山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松鶴의 響音을 일어 재는 큰 나무라고는 거의 없었으니 萬若 우리의 작업현장을 둘러싼 이들에 巨木들이 그대로 거져 있다면 白晝에도 幽玄한 感을 줄 수있는 곳 磐境은 山川의 美를 찾아다니며 原始宗教의 儀式的인 歌舞의 修練으로 國家에 身命을 다한 花郎徒들의 道場에 알맞는 곳이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이곳의 新羅遺蹟은 1970년 慶州에서 新羅王國의 國立博物館이 주관하여 실시한 學術調査에 의하여 그 一端이 밝혀진 바 있으나 이곳 蔚州에서의 新羅遺蹟은 아직 全貌가 밝혀지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三)

이상과 같은 上半面의 題名과 最初의 銘文은 모두 乙巳年에 동시에 만들어졌다고 생각 되며 이들만이 이 善石의 原形이었다고 추정된다。그런데 그 以外에 다시 幾次에 걸쳐서 新羅王을 비롯하여 無數한 신라인이 이 善石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하여주고 있다。그중 人名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上半部의 題銘 및 下半部의 追銘에서 二次로 새겨진 追銘이 있어서 합계 三百字에 이르는바 그중 判讀된 文字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이런 調査에서 가장 고심한 것은 바로 이들 二種의 金石文이었는데 이들을 분하여 우리는 이善石의 內容과 그 年代를 조금씩 접작할수 있게되었다。原追銘은 다음과 같다。

「乙巳(以下缺)
沙□部(□)
文□夫遊來始得見谷□
之□谷(?)石名谷善石□造□
乙以下爲名聲(善)石谷字作□
並遊友妹麗(?)德光妙於史
郎安郎主之
原多新作功人宗利天智大奈□(麻)
沙喙部(□)
文□夫遊來始得見谷□
之□谷(?)石名谷善石□造□
乙以下爲名聲(善)石谷字作□
並遊友妹麗(?)德光妙於史
郎安郎主之
原多新作功人宗利天智大奈□(麻)」

(四)

그런데 이 銘文과 나란히 있는 善石에는 또하나의 가장 귀중한 신라의 繪畵가 그下端全面 가득히 새겨져 있다。모두 예리한 細線刻인데 그시대는 거의 三국말 5·6세기경으로서 아마도 乙巳年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題題는 男女人物 動物像을 비롯하여 騎馬行列 大小船舶등 매우 다채로우며 刻線은 自由롭고 運動感이 넘치고 있으며 이같은 繪畵는 기왕에 갖춘 신라土器의 곳에서 數例를 찾을수 있었으나 이번에 조사된 畵(聲)石의 內容은 數個의 擬人化를 마련하여 이 善石全面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그들을 追跡하여 物語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 많은 노력과 時間을 필요로 할 것이다。더욱이 主銘文을 中心삼아서는 無數한 刻線이 중첩되고 있어서 이번에 描寫한 數十例 이외에도 더욱 많은 수가 있을 것이다。이것은 全面에 새겨진 銘文과 더불어 一劃一線을 疏忽히 하여서는 아니될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特殊資料에 봉착한 것은 특림이 없다。金剛石과같이 빛나는 一大石을 확보한 것은 이제 꿈이 아니다。그러나 硏磨없이 光彩를낼 수는 없으며 粉碎의 노력과 集中된 精誠을 모아야할 것이다。川邊에 자라잡고 있어 破損의 憂慮등 앞으로의 保存이 또한 時急함을 요하고 따라서 매우 어려운 課題를 남겨두게 되었다。本博物館은 창설이래 가장 중요한 이 善石을 國寶로 假指定하였으므로 法的保護策을 받게되었다。

이 善石은 完全한 것이 아니다。그러나 硏磨의 전후 우리 古代의 歷史와 美術과 生活과 宗敎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작업이 우리학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제一차 현장 조사를 위하여 金總長님 이하 蔚校의 白 배려와 조사원의 헌신적 努苦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五月五日)

最古의 金石文·繪畵

王名에서 花郎의이름 年號도 新羅의 固有사상과 民俗그려

黃 壽 永
<本校 博物館長·佛教大교수>

(一)

이곳은 우리나라 南端에 가까운 慶南 蔚州郡 斗東面 川前里인데 신라 金庾信將軍의 修練場으로 전하는 咽(목) 瀑山에서 發源하여 東海에 이르는 大和江의 上流이기도 하다。九曲溪를 이루는 이 반계천은 이곳에 이르러 크게 완곡되어서 U자형을 이루었으며 水石은 한층 아름다워서 멀지 않은 下流에는 磐龍名勝이라 일컫는 盤龜臺의 絶景을 이루고 있다。이같은 天成의 조건은 일찌기 이곳이 신라 王都에 인접되고 있어서 內陸에서 海洋에 이르는 가장 重要한 交通路의 구실을 하였기에 마침내 이곳에서 自然과 歷史와 人物의 기묘한 契合을 얻기에 이르렀던 것이다。마침내 無名이던 이곳에서 그들의 표현대로 「善石」을 찾았으며 이 善石을 다듬어 혹은 文字를 새겼던 것이다。그리하여 古新羅에서 統一末期에 이르는 數百年 그들이 長敬하며 애써 찾던 곳이기도 하였다。

이른바 이 善石은 상기와 같이 U형을 이루는 溪流에 있어 急流는 상대편 암벽을 따라서 흐르고 있다。이것 또한 이 善石이 오늘에 보존되어 오는 한 원인이 되었다。이 善石은 동시에 그 벽면이 앞으로 傾斜되어 있어서 風化作用에서 어느정도 보호되어 왔을 것이다。

石面 그 자체는 人工에 의하여 다듬어지기는 하였으나 넓이 약 10m 높이 약 3m에 달하는 이 大石은 몇 곳에 剝落과 龜裂의 흔적을 보이기는 하나 오늘에 完存한 것은 또한 多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造形이후 아마도 新羅王國의 運命과 더불어 忘却되고 放棄되어서 그에 대한 記錄이나 口傳조차 없이 千年의 歲月이 흐르는 사이에 表面에는 두께운 苔가 모든 것을 감추어버렸던 것이다。昨年 12月 下旬에 박물관의 조季調査가 이 溪谷의 寺址를 더듬어 올라갔을 때 이곳 盤龜部落의 有力者인 崔老人의 敎示로서 처음으로 發見된 것이다。그 때 이 善石은 矩形을 이루고 東南을 向하여 南北으로 길게 자리잡고 있다。먼저 이곳에서 주목된 내용은 磐龜의 絶緣은 좋은 詩歌 또는 聚朴한 古代人의 題名을 뿐 아니라 또한 寫實畵를 調査하는 것이 우리 一行이 하여야할 일이었다。

(二)

조사에 앞서 우리는 이 부근의 地形을 대체로 살펴 보았다。文字와 그림 등이 가득 새겨져 있는 巨岩에서 U字形으로 구부러진 냇가를 사이에 두고 이 냇가 바로 뒤에는 個峙急한 山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松鶴의 響音을 일어 재는 큰 나무라고는 거의 없었으니 萬若 우리의 작업현장을 둘러싼 이들에 巨木들이 그대로 거져 있다면 白晝에도 幽玄한 感을 줄 수있는 곳 磐境은 山川의 美를 찾아다니며 原始宗教의 儀式的인 歌舞의 修練으로 國家에 身命을 다한 花郎徒들의 道場에 알맞는 곳이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이곳의 新羅遺蹟은 1970년 慶州에서 新羅王國의 國立博物館이 주관하여 실시한 學術調査에 의하여 그 一端이 밝혀진 바 있으나 이곳 蔚州에서의 新羅遺蹟은 아직 全貌가 밝혀지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三)

이상과 같은 上半面의 題名과 最初의 銘文은 모두 乙巳年에 동시에 만들어졌다고 생각 되며 이들만이 이 善石의 原形이었다고 추정된다。그런데 그 以外에 다시 幾次에 걸쳐서 新羅王을 비롯하여 無數한 신라인이 이 善石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하여주고 있다。그중 人名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上半部의 題銘 및 下半部의 追銘에서 二次로 새겨진 追銘이 있어서 합계 三百字에 이르는바 그중 判讀된 文字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이런 調査에서 가장 고심한 것은 바로 이들 二種의 金石文이었는데 이들을 분하여 우리는 이善石의 內容과 그 年代를 조금씩 접작할수 있게되었다。原追銘은 다음과 같다。

「乙巳(以下缺)
沙喙部(□)
文□夫遊來始得見谷□
之□谷(?)石名谷善石□造□
乙以下爲名聲(善)石谷字作□
並遊友妹麗(?)德光妙於史
郎安郎主之
原多新作功人宗利天智大奈□(麻)」

이상과 같이 이들 上半部의 題銘과 最初의 銘文은 모두 乙巳年에 동시에 만들어졌다고 생각 되며 이들만이 이 善石의 原形이었다고 추정된다。그런데 그 以外에 다시 幾次에 걸쳐서 新羅王을 비롯하여 無數한 신라인이 이 善石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하여주고 있다。그중 人名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上半部의 題銘 및 下半部의 追銘에서 二次로 새겨진 追銘이 있어서 합계 三百字에 이르는바 그중 判讀된 文字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이런 調査에서 가장 고심한 것은 바로 이들 二種의 金石文이었는데 이들을 분하여 우리는 이善石의 內容과 그 年代를 조금씩 접작할수 있게되었다。原追銘은 다음과 같다。

①乙巳(以下缺)
②沙喙部(□)
③文□夫遊來始得見谷□
④之□谷(?)石名谷善石□造□
⑤乙以下爲名聲(善)石谷字作□
⑥並遊友妹麗(?)德光妙於史
⑦郎安郎主之
⑧原多新作功人宗利天智大奈□(麻)
⑨悉尸斯智大舍帝智作食□(人?)
⑩桑知智舍帝吉干支婁居知尸奈夫□(人?)
⑪眞穴智沙干支婁阿多牟利夫人
⑫作書人宗舍帝智大舍帝智

이상 原銘 12行은 記刻의 順位나 古拙한 字體에서 미루어 第1行 첫머리에 겨우 남은 「乙巳」年을 처음에는 6세기초 신라 法興王 12年(서기 525年)으로 추정한바 있었다。그러나 今次 조사에서는 追銘과의 관련에서 1周甲을 올려서 5세기 後半으로 추정할수있는 「可能性에 대하여서도 새로운 論議가 있었다。第4行의 善石得造는 그 以下의 重要한 1字가 缺하여 造形의 內容을 곧바로 추정할수가 없었다。그러나 이것도 「字作」이라한 것과 追銘에 의하여 善(또는 誓)로 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그리하여 그후 谷名을 善石谷이라 불렀다는 것이며 第6行 이하에는 主管한 光妙와 安郎 史郎등 男女3人과 이일에 관여한 人名이 기록되어 있다。

①過去乙巳年六月十八日昧沙喙
②部徙夫知□□王妹於史郎安郎
③三共遊來以後□年八己年過去妹王老

蔚州郡의 花郎遺蹟踏査記

高速道路가 마주보이는 九浪이라는 마을에서 彦陽街道를 벗어나 東으로 小型乘用車가 들어가기에도 빠빡한 비좁고 屈曲많은 山기슭길을 몇번 돌면 우리 조사단一行이 목적지로 되어있는 盤龜臺가 아니고 蔚州郡과의 崔老人宅이다。

國展生活의 시름을 덜어 잘 다듬은 것같이 보이는 幅이 약 10m 높이 약 3m의 巨岩에 가득 새겨 있는 文字와 畵(聲)石의 古代人의 題名을 調査하는 것이 우리 一行이 하여야할 일이었다。

(二)

조사에 앞서 우리는 이 부근의 地形을 대체로 살펴 보았다。文字와 그림 등이 가득 새겨져 있는 巨岩에서 U字形으로 구부러진 냇가를 사이에 두고 이 냇가 바로 뒤에는 個峙急한 山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松鶴의 響音을 일어 재는 큰 나무라고는 거의 없었으니 萬若 우리의 작업현장을 둘러싼 이들에 巨木들이 그대로 거져 있다면 白晝에도 幽玄한 感을 줄 수있는 곳 磐境은 山川의 美를 찾아다니며 原始宗教의 儀式的인 歌舞의 修練으로 國家에 身命을 다한 花郎徒들의 道場에 알맞는 곳이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이곳의 新羅遺蹟은 1970년 慶州에서 新羅王國의 國立博物館이 주관하여 실시한 學術調査에 의하여 그 一端이 밝혀진 바 있으나 이곳 蔚州에서의 新羅遺蹟은 아직 全貌가 밝혀지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三)

이상과 같은 上半面의 題名과 最初의 銘文은 모두 乙巳年에 동시에 만들어졌다고 생각 되며 이들만이 이 善石의 原形이었다고 추정된다。그런데 그 以外에 다시 幾次에 걸쳐서 新羅王을 비롯하여 無數한 신라인이 이 善石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하여주고 있다。그중 人名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上半部의 題銘 및 下半部의 追銘에서 二次로 새겨진 追銘이 있어서 합계 三百字에 이르는바 그중 判讀된 文字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이런 調査에서 가장 고심한 것은 바로 이들 二種의 金石文이었는데 이들을 분하여 우리는 이善石의 內容과 그 年代를 조금씩 접작할수 있게되었다。原追銘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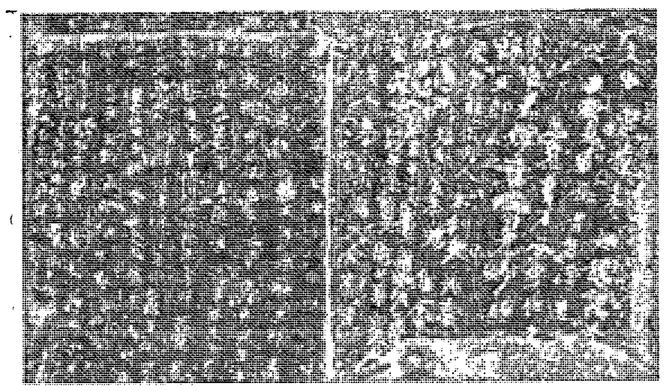
①乙巳(以下缺)
②沙喙部(□)
③文□夫遊來始得見谷□
④之□谷(?)石名谷善石□造□
⑤乙以下爲名聲(善)石谷字作□
⑥並遊友妹麗(?)德光妙於史
⑦郎安郎主之
⑧原多新作功人宗利天智大奈□(麻)
⑨悉尸斯智大舍帝智作食□(人?)
⑩桑知智舍帝吉干支婁居知尸奈夫□(人?)
⑪眞穴智沙干支婁阿多牟利夫人
⑫作書人宗舍帝智大舍帝智

이상 原銘 12行은 記刻의 順位나 古拙한 字體에서 미루어 第1行 첫머리에 겨우 남은 「乙巳」年을 처음에는 6세기초 신라 法興王 12年(서기 525年)으로 추정한바 있었다。그러나 今次 조사에서는 追銘과의 관련에서 1周甲을 올려서 5세기 後半으로 추정할수있는 「可能性에 대하여서도 새로운 論議가 있었다。第4行의 善石得造는 그 以下의 重要한 1字가 缺하여 造形의 內容을 곧바로 추정할수가 없었다。그러나 이것도 「字作」이라한 것과 追銘에 의하여 善(또는 誓)로 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그리하여 그후 谷名을 善石谷이라 불렀다는 것이며 第6行 이하에는 主管한 光妙와 安郎 史郎등 男女3人과 이일에 관여한 人名이 기록되어 있다。

①過去乙巳年六月十八日昧沙喙
②部徙夫知□□王妹於史郎安郎
③三共遊來以後□年八己年過去妹王老

新羅人의 信表、習俗感情새겨

感激—文字、그림 復元에



▲銘文(乙巳銘및乙未銘)

(一)

彦陽面盤龜臺가 아니고 蔚州郡과의 崔老人宅이다。

國展生活의 시름을 덜어 잘 다듬은 것같이 보이는 幅이 약 10m 높이 약 3m의 巨岩에 가득 새겨 있는 文字와 畵(聲)石의 古代人의 題名을 調査하는 것이 우리 一行이 하여야할 일이었다。

(二)

조사에 앞서 우리는 이 부근의 地形을 대체로 살펴 보았다。文字와 그림 등이 가득 새겨져 있는 巨岩에서 U字形으로 구부러진 냇가를 사이에 두고 이 냇가 바로 뒤에는 個峙急한 山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松鶴의 響音을 일어 재는 큰 나무라고는 거의 없었으니 萬若 우리의 작업현장을 둘러싼 이들에 巨木들이 그대로 거져 있다면 白晝에도 幽玄한 感을 줄 수있는 곳 磐境은 山川의 美를 찾아다니며 原始宗教의 儀式的인 歌舞의 修練으로 國家에 身命을 다한 花郎徒들의 道場에 알맞는 곳이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이곳의 新羅遺蹟은 1970년 慶州에서 新羅王國의 國立博物館이 주관하여 실시한 學術調査에 의하여 그 一端이 밝혀진 바 있으나 이곳 蔚州에서의 新羅遺蹟은 아직 全貌가 밝혀지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三)

이상과 같은 上半面의 題名과 最初의 銘文은 모두 乙巳年에 동시에 만들어졌다고 생각 되며 이들만이 이 善石의 原形이었다고 추정된다。그런데 그 以外에 다시 幾次에 걸쳐서 新羅王을 비롯하여 無數한 신라인이 이 善石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하여주고 있다。그중 人名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上半部의 題銘 및 下半部의 追銘에서 二次로 새겨진 追銘이 있어서 합계 三百字에 이르는바 그중 判讀된 文字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이런 調査에서 가장 고심한 것은 바로 이들 二種의 金石文이었는데 이들을 분하여 우리는 이善石의 內容과 그 年代를 조금씩 접작할수 있게되었다。原追銘은 다음과 같다。

①乙巳(以下缺)
②沙喙部(□)
③文□夫遊來始得見谷□
④之□谷(?)石名谷善石□造□
⑤乙以下爲名聲(善)石谷字作□
⑥並遊友妹麗(?)德光妙於史
⑦郎安郎主之
⑧原多新作功人宗利天智大奈□(麻)
⑨悉尸斯智大舍帝智作食□(人?)
⑩桑知智舍帝吉干支婁居知尸奈夫□(人?)
⑪眞穴智沙干支婁阿多牟利夫人
⑫作書人宗舍帝智大舍帝智

이상 原銘 12行은 記刻의 順位나 古拙한 字體에서 미루어 第1行 첫머리에 겨우 남은 「乙巳」年을 처음에는 6세기초 신라 法興王 12年(서기 525年)으로 추정한바 있었다。그러나 今次 조사에서는 追銘과의 관련에서 1周甲을 올려서 5세기 後半으로 추정할수있는 「可能性에 대하여서도 새로운 論議가 있었다。第4行의 善石得造는 그 以下의 重要한 1字가 缺하여 造形의 內容을 곧바로 추정할수가 없었다。그러나 이것도 「字作」이라한 것과 追銘에 의하여 善(또는 誓)로 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그리하여 그후 谷名을 善石谷이라 불렀다는 것이며 第6行 이하에는 主管한 光妙와 安郎 史郎등 男女3人과 이일에 관여한 人名이 기록되어 있다。

①過去乙巳年六月十八日昧沙喙
②部徙夫知□□王妹於史郎安郎
③三共遊來以後□年八己年過去妹王老

新羅遺蹟 새길에 들어

蔚州郡의 花郎遺蹟踏査記

範 龍 李
<文理大 大學院 史學科 敎授·學長>

高速道路가 마주보이는 九浪이라는 마을에서 彦陽街道를 벗어나 東으로 小型乘用車가 들어가기에도 빠빡한 비좁고 屈曲많은 山기슭길을 몇번 돌면 우리 조사단一行이 목적지로 되어있는 盤龜臺가 아니고 蔚州郡과의 崔老人宅이다。

國展生活의 시름을 덜어 잘 다듬은 것같이 보이는 幅이 약 10m 높이 약 3m의 巨岩에 가득 새겨 있는 文字와 畵(聲)石의 古代人의 題名을 調査하는 것이 우리 一行이 하여야할 일이었다。

(二)

조사에 앞서 우리는 이 부근의 地形을 대체로 살펴 보았다。文字와 그림 등이 가득 새겨져 있는 巨岩에서 U字形으로 구부러진 냇가를 사이에 두고 이 냇가 바로 뒤에는 個峙急한 山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松鶴의 響音을 일어 재는 큰 나무라고는 거의 없었으니 萬若 우리의 작업현장을 둘러싼 이들에 巨木들이 그대로 거져 있다면 白晝에도 幽玄한 感을 줄 수있는 곳 磐境은 山川의 美를 찾아다니며 原始宗教의 儀式的인 歌舞의 修練으로 國家에 身命을 다한 花郎徒들의 道場에 알맞는 곳이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이곳의 新羅遺蹟은 1970년 慶州에서 新羅王國의 國立博物館이 주관하여 실시한 學術調査에 의하여 그 一端이 밝혀진 바 있으나 이곳 蔚州에서의 新羅遺蹟은 아직 全貌가 밝혀지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三)

이상과 같은 上半面의 題名과 最初의 銘文은 모두 乙巳年에 동시에 만들어졌다고 생각 되며 이들만이 이 善石의 原形이었다고 추정된다。그런데 그 以外에 다시 幾次에 걸쳐서 新羅王을 비롯하여 無數한 신라인이 이 善石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하여주고 있다。그중 人名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上半部의 題銘 및 下半部의 追銘에서 二次로 새겨진 追銘이 있어서 합계 三百字에 이르는바 그중 判讀된 文字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이런 調査에서 가장 고심한 것은 바로 이들 二種의 金石文이었는데 이들을 분하여 우리는 이善石의 內容과 그 年代를 조금씩 접작할수 있게되었다。原追銘은 다음과 같다。

①乙巳(以下缺)
②沙喙部(□)
③文□夫遊來始得見谷□
④之□谷(?)石名谷善石□造□
⑤乙以下爲名聲(善)石谷字作□
⑥並遊友妹麗(?)德光妙於史
⑦郎安郎主之
⑧原多新作功人宗利天智大奈□(麻)
⑨悉尸斯智大舍帝智作食□(人?)
⑩桑知智舍帝吉干支婁居知尸奈夫□(人?)
⑪眞穴智沙干支婁阿多牟利夫人
⑫作書人宗舍帝智大舍帝智

이상 原銘 12行은 記刻의 順位나 古拙한 字體에서 미루어 第1行 첫머리에 겨우 남은 「乙巳」年을 처음에는 6세기초 신라 法興王 12年(서기 525年)으로 추정한바 있었다。그러나 今次 조사에서는 追銘과의 관련에서 1周甲을 올려서 5세기 後半으로 추정할수있는 「可能性에 대하여서도 새로운 論議가 있었다。第4行의 善石得造는 그 以下의 重要한 1字가 缺하여 造形의 內容을 곧바로 추정할수가 없었다。그러나 이것도 「字作」이라한 것과 追銘에 의하여 善(또는 誓)로 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그리하여 그후 谷名을 善石谷이라 불렀다는 것이며 第6行 이하에는 主管한 光妙와 安郎 史郎등 男女3人과 이일에 관여한 人名이 기록되어 있다。

①過去乙巳年六月十八日昧沙喙
②部徙夫知□□王妹於史郎安郎
③三共遊來以後□年八己年過去妹王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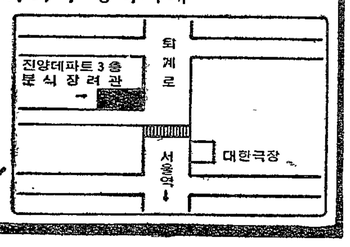
해방후 最大의 學的성과 注目돼

✳화창한 계절!!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가벼운 식사를!

현대 감각을 가미한 초현대식 식당시설,
감미로운 음악과 아늑한 분위기——
다채로운 미각의 분식을 맛 보세요!

* 가족 동반과
다정한 벗끼리의 경식사에……



대한제분주식회사
분식장려관
대한극장앞 진양데파트3층 TEL ㉖2171 (교환) 305

대한제분에서 생산되는 밀가루 음식을 맛보세요!

코스모스 백화점 큐피드표

베스트복장의 큐피트표는 현대적인 감각과 품질의 우수성을 보장합니다

슈-샤쓰
남자양품 생산도매
부라우스
여자양품 (남영코너)

(1) 주문배수
(2) 동대생및 동문에게 특별할인봉사
(3) 도매상 특약점 희망자 접수

본 사 시내 중구오장동69의2 (오대양빌딩 5층) 베스트복장사 대표 권 태 현 (전정)
TEL 54~7478
양품영업부 시내 서중구명동2가83의5 (남영코너) 코스모스백화점 2층(2420~5)
TEL 22~6682

본학원에서는 항상 동대생을 기다리고 있아오니 하학길에 한번 들려주세요

째즈 피아노 팝송보칼반
클라식 키—타(팝송연주반) 전자오르간 연주반
단체반 개인반 환영
원하시는 시간에
언제나 접수합니다

충무로4가(대한극장옆)
관인 이양일음악예술학원
전화 ㉓8621

傷夜

朴英姬

四方에서 수런거리는 소리
비로소 몸을 푸는
꽃망울의 가쁜 呼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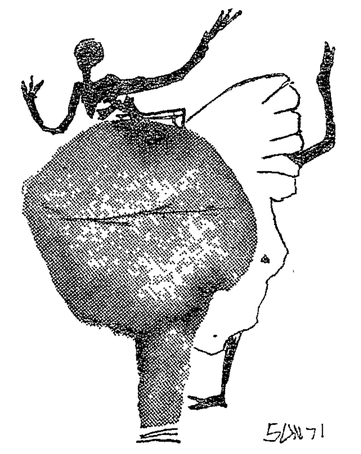
숨은 病床에서 살아나는 몸짓
한가닥 忍苦를 벗는
女人의 가만한 微笑

햇살은 수줍게 파고들고
바람은 가볍게 돌아다니고
무리진 바보들이
공연히 술렁이는 4月

나는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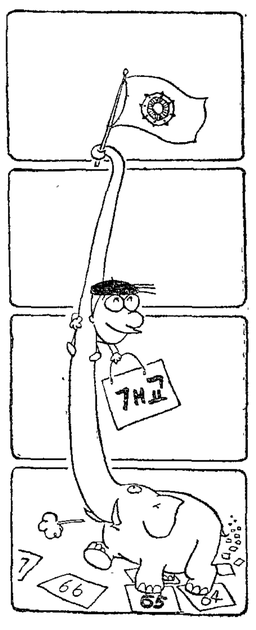
어떤 하루
地方法院에서 나란히 버틴
아빠의 단단한 가슴과
엄마의 여린 점념 뒤에서
열여섯 붉은 불을 앗기고
조용하고 격렬하게 웃어제치던
그 少女의 그날 以後를。

<圖文科>



<48>

高基聖군 대원



漢詩에 나타난

古典的 女性美

서라벌 옛멋 現代女性에도

꽃바람 속에 그네타는 四春의 섭리

一詩篇 戀心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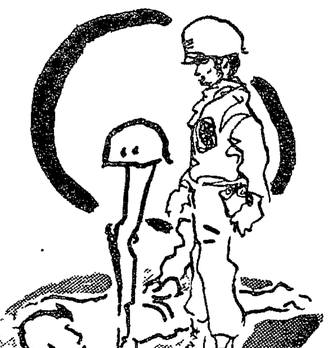
金甲起

<東洋最高의 古典美人으로 불리우는 楊貴妃。>

梨花月白에 눈물짓는 純粹美 그리워

□世間에 「楊州鶴」이란 말이 있다。내 □남업이 주제가 변변치 못한 客들의 □보두리들이니 第1者의 원은 楊州 □의 刺史 되기요, 2者는 金 萬 □貫이, 3者는 鶴을 타고 昇天의 □仙人이 그것이요 第4者曰, □金 萬貫을 허리에 두르 □고 鶴의 등에 올라 楊州 □에 가서 刺史되는것이 □소원이라니, 言必 허황 □한 꿈이란 뜻이겠다。그래 □서 洋의 東에 戀史의 언덕 □인 玄宗과 貴妃의 「在天願作 □飛翼鳥, 在地願爲連理枝(白樂天 □·長恨歌)의 長生殿誓盟도 술한 □말어와 비화를 남긴채 離恨天의不 □死魂이 되었나보다。

오늘날 뭇 男子들의 「야 그가시내 서라벌 옛멋이 있는데!」式의 外形的여 성品評(?)을 십십히 들 는다。글쎄 외모야 越女 여도 좋고 秦娥여도 별 일 없지만 문제는 女心 에에 있다。장미보단 등숙 한 모란이 좋고, 샤류비 아보단 石榴이 은근하고 친근 스럽다。열 길 물 속에 알몸으로 철벙 뛰 어 들어가도, 한 길 女 心엔 잔악한 뱀이 수십 일 수가 있을에, 漢詩上 의 古典女性美를 萬頃光 波의 一曲이라도 들고자 함이니 男寺堂 들이여! 「若對此君仍大嚼」(蘇東 波·絲竹헌)한 楊州鶴의 人生一等 행운을 참고하 라。물론「不羨今人愛古人」 속에 안주하여 「새로운 사랑」을 거절함은 아니다。

梨花月白에 눈물짓는 純粹美 그리워

다음은 杜甫의 「新婚別」이다。천날 밤 첫 정이 채 끝나기도 전에 父母님을 전쟁터로 보내야 하는 기막힌 新婦의 다짐이니 그 類가 現今에 여러도 있을 것이다。